

재학생으로서의 대학생활과 느낀점

12학번 장문혁

나에게 있어서 ‘울림’은 이랬다. 2012년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대학교, 낯선 환경과 서투른 대인관계도 잠시였고 나는 점점 즐겁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에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서로 즐기며 놀다 보니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전해져오던 선후배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남자라면 꼭 가본다는 군대를 가게 되었다. 군대에서 보낸 21개월의 시간이 지나 내가 다시 대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마치 신입생 때와 같이 모든 것이 어색했다. 처음으로 복학생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학교에 돌아왔을 땐 많은 것이 변해있었다. 그래도 유독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 했던 탓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시선은 슬슬 나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번년도 신입생들에게 눈길이 많이 갔다.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던 나의 신입생 시절, 나에게 그 시절을 선물해준 선배들 처럼 나도 올해 신입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선배가 되고 싶었다. 그러다보니 후배들도 나를 잘 따라와 주면서 나 역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기존에 내가 받았던 ‘울림’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다가왔다. 그 친구들이 내가 신입생 시절에 받았던 나의 ‘울림’을 조금이나마 공유가 될 수 있길 원했고 이런 과정에서 나 역시도 그때의 ‘울림’과는 다른 새로운 ‘울림’을 받을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울림’은 나를 더 넓고 큰 곳으로 인도했

■ 대학생활의 울림

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림'의 감정을 공유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활동과 대외활동도 많이 하게 되었다. '올해를 되돌아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저 여러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치켜세워주고 위로 밀어 주고 있었다. 한해를 정리 하면서 나에게 '울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자리 잡았다. 신입생 때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줬던 것이 재학생이 되고 서는 나를 치켜 세워주고 일으켜 주는 것으로 변해서 다가왔다. 앞으로 내가 살면서 또 어떤 새로운 '울림'들이 내게 다가올지 기대 된다.